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홀수형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재은: 성아야, 같이 가. 어? 그거 수민이 가방 아니야?
 성아: 응, 수민이가 보건실에 있는데 조퇴하려고 하거든.
 재은: ㉠ 하긴,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긴 했지. 그래서 가방 가져다주는 거구나. 저번에 내가 다쳤을 때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더니, ㉡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김성아야.
 성아: (웃으며) 고마워. 언제나 네 말을 들으면 힘이 나.
 재은: 근데 너, 아까 점심시간에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성아: 어? (잠시 말을 머뭇거리며) 그게…….
 재은: 뭔데? 얘기해 봐.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
 성아: 음, ㉢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번 전교 학생 회장 선거에 출마해 보면 어떨까?
 재은: 정말? 훌륭한데! 그런데 갑자기 왜?
 성아: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잠깐 임시 반장을 했었잖아. 학기 초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친구들이 친해지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았어. 난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전교 학생 회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은: 그렇구나. 그런데 너, ㉣ 예전에는 뒤에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했어도 앞에 나서는 건 꺼리지 않았어?
 성아: 그랬지. 그런데 막상 임시 반장을 해 보니까 남들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더라고. 또……. (잠시 침묵)
 재은: ㉤ 그리고? 계속해 봐.
 성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도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피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극복해 보려고.
 재은: 그렇구나. 큰 결심 했다. 나도 도와줄게.
 성아: 고마워. 그런데, 좀 고민되는 게 있어. 선거 운동 기간에 연설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
 재은: 음, 대중 앞에서 설득적 말하기를 할 때는,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대. 그러니까 () ㉞

- 위 대화를 고려할 때, ㉠~㉞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 ㉢: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대화 참여자 간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화제 선택에 제약을 줄 수 있다.
 - ㉤: 대화 참여자의 협력적 반응이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㉞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네가 학생 회장으로서 학생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것을 강조해 봐. 그러면 청중이 너의 자신감을 높이 살 거야.
 - 네가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던 이야기를 해 봐. 그러면 청중은 네가 학생 회장에게 어울리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 네가 항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 일을 주도해 왔다는 것을 강조해 봐. 그러면 청중은 네가 많은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학생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 네가 임시 반장을 하며 만든 프로그램이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건 어때? 그 말에 청중은 네가 학생 회장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할 거야.
 - 네가 학생 회장이 되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해 봐. 그러면 청중은 자신의 숨어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할 거야.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진행자: ‘책 사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우리나라 배』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반갑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의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전문가: 네, 그건 배의 밑 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덕분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용이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섬이 많고 수심이 얇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비교적 큰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전문가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전문가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전문가의 말에 나온 용어의 개념을 물음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중심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대담을 진전시키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엑스선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선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희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희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희의 ‘잔디밭’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선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엑스선이 이용됐다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긴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희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희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이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 ②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④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⑤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⑤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6~7] 다음은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방송국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UCC 제작 기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다양한 UCC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아직 UCC 제작 경험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UCC를 제작하고 싶어 하지만 여유 시간이 부족하거나 제작 기술을 몰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UCC 제작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UCC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를 다룬 보고서를 살펴보면, UCC를 제작해 본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보도 더 많이 얻고, 태도도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CC 제작 기술을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담당자님께 거듭 부탁 드립니다.

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의 요구가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필자의 정서가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행위이다.
- ③ 특정한 독자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별 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주장의 실현에 따른 사회적 효과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⑤ 필자가 속한 집단의 개인 정보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7.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설문 조사(청소년 대상)

1. UCC 제작 경험

| 제작 경험 | 응답(%) |
|-------|-------|
| 있음 | 28 |
| 없음 | 72 |

2. 향후 UCC 제작 의향

| 제작 의향 | 응답(%) |
|-------|-------|
| 있음 | 89 |
| 없음 | 11 |

* UCC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상

(나) 청소년의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 UCC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상

(다) 관련 보고서
UCC 제작 활동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UCC 제작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제작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들 중 제작 기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의향은 있으나 실제로 제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8.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학습 만화는 교과 학습과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학습 만화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교과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 만화를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고 즐겨 읽게 할 필요가 있다.

[조건]

- 1.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 2. '학습 만화 읽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

- ① 학습 만화가 재미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쉽고 짧은 표현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다양한 어휘 습득이 어렵다.
- ② 학습 만화는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 그러므로 독자는 학습 만화에 담긴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③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주제를 다룬 참고 도서를 폭넓게 읽도록 한다.
- ④ 학습 만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에만 집중하여 교과 내용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학습 만화는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된다.
- ⑤ 학습 만화는 심화 과목 학습에 기초가 된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만화를 통해 교과 지식을 넓힌다면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친구들에게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시는 최근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눔 도서관에서는 책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듣는 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판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여받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책이 한두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나눔 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을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요.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시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나눔 도서관의 의의를 서두 부분에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야지.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나눔 도서관이 하는 일들 중 학생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은 소개하지 말아야겠어.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줘야지.

10. '국어 사랑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바르게 고쳐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의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약밥 → [약뻬], 잡다 → [잡따]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텅]

- ㉠ ㉠과 ㉡은 음절 중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에 ㉡'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 ㉠ ㉡'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뀌 쓸 수 없군.
- ⑤ '에 ㉠ ㉡'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 이것도 ㉡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용다용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 ⑤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②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③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
- ④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⑤ 분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하였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α 와 β 의 별빛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①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③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
- ⑤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 견고하게 서 있다.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승선교는 못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 ③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 ④ 홍예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 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20. 윗글의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천교(玉川橋)는 창경궁(昌慶宮)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다.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옥천교는 두 개의 홍예를 이어 붙이고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했다.

-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 ②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겠군.
- 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21.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쓰였다
- ② ㉡: 튼튼하게
- ③ ㉢: 튀어나와
- ④ ㉣: 그친다고
- ⑤ ㉤: 주는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및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22.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크게 달라졌다.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의 경우는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고 말았다.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군.
-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③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26.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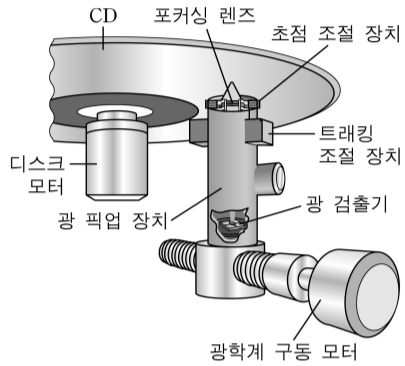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28.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 영역 | 전 | 후 | 좌 | 우 |
|-----------|---|---|---|---|
| 상태 1의 출력값 | 2 | 2 | 3 | 1 |
| 상태 2의 출력값 | 5 | 5 | 3 | 3 |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샹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 ① 제1연과 제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군.
-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제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제6연의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중략 줄거리】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영호’,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튕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

주 예뻐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아!”

어머니의 ㉦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③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5. '어머니'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②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⑤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顏)*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顏)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삼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

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우고 춘삼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A]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우는 한편, 인형과 춘삼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삼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우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새, 격서(檄書)를 울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홍길동은 글을 울도왕에게 부치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키매,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밀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보기를 마치자 크게 놀라,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었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대항하리오.”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울도왕을 의령군에 봉했다.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 갖지 않으니, 태평세계라고 할 만하였다.

- 허균, 「홍길동전」 -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 ②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 ③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 ④ 울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 ⑤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울도국을 다스렸다.

4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친의 삼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 ② 부친의 생전에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 ③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 ④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부친 사후 모부인을 중심으로 길동의 가족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 ⑤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자 홍길동의 일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받자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길동이 울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흥맹한 형리(刑吏)처럼—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으나.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딱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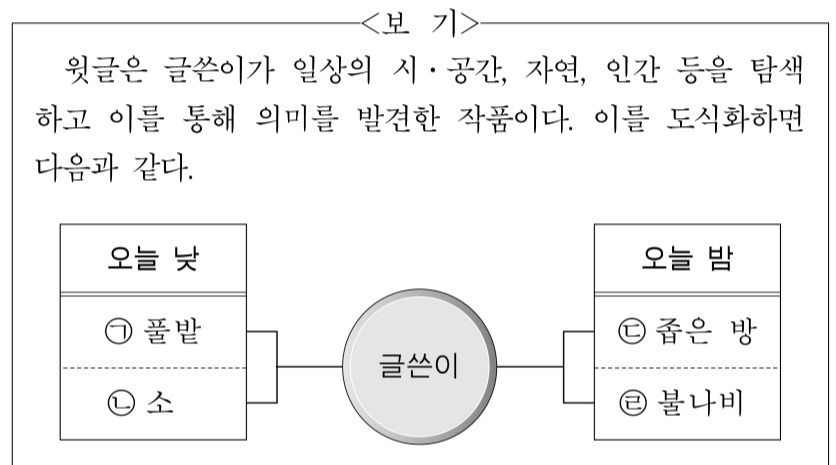
- 이상, 「권태」 -

* 등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B형)과목 (홀수)형

| 문항 번호 | 정 답 | 배 점 | 문항 번호 | 정 답 | 배 점 | 문항 번호 | 정 답 | 배 점 | 문항 번호 | 정 답 | 배 점 |
|----------|-----|-----|----------|-----|-----|----------|-----|-----|----------|-----|-----|
| 1 | ④ | 2 | 13 | ② | 2 | 25 | ② | 2 | 37 | ⑤ | 3 |
| 2 | ③ | 2 | 14 | ⑤ | 2 | 26 | ③ | 2 | 38 | ① | 2 |
| 3 | ② | 3 | 15 | ③ | 2 | 27 | ② | 3 | 39 | ⑤ | 2 |
| 4 | ④ | 2 | 16 | ③ | 3 | 28 | ⑤ | 2 | 40 | ② | 3 |
| 5 | ① | 2 | 17 | ④ | 2 | 29 | ④ | 2 | 41 | ④ | 2 |
| 6 | ③ | 2 | 18 | ④ | 2 | 30 | ① | 3 | 42 | ⑤ | 2 |
| 7 | ④ | 3 | 19 | ⑤ | 2 | 31 | ③ | 2 | 43 | ③ | 3 |
| 8 | ⑤ | 2 | 20 | ③ | 2 | 32 | ③ | 2 | 44 | ① | 2 |
| 9 | ② | 2 | 21 | ② | 3 | 33 | ① | 3 | 45 | ④ | 2 |
| 10 | ⑤ | 2 | 22 | ⑤ | 2 | 34 | ⑤ | 2 | | | |
| 11 | ② | 2 | 23 | ⑤ | 2 | 35 | ① | 2 | | | |
| 12 | ① | 2 | 24 | ① | 2 | 36 | ③ | 2 | | | |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출수형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유서연입니다. 박사님의 책 『화폐 속 문화』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지에 실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 왔는데요. 먼저, 천 원권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사: 그러죠.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 네. 앞면엔 퇴계 이황, 뒷면엔 도산 서원이 있어요.

박사: 맞아요. (천 원권 뒷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학생: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박사: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박사: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학생: 와!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사: 그렇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답니다.

학생: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만 원권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들어 있나요?

박사: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만 원권을 가리키며) 여기 세종 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2장이 있어요.

학생: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뒷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박사: 맞아요. 이것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일부예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별자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별의 밝기 까지도 표시했지요. 조선 시대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학생: 와! 지갑 속에 우주가 들어 있었군요.

박사: 참 신기하죠? 평소에 저는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진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박사는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지: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을 바탕으로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했지?

서연: 그럼 인터뷰의 내용이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에 관한 거니까 표제는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민지: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태성: 그건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 …………… ②

민지: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서연: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테니 그 의미를 추가하여 설명하면 좋겠어. …………… ③

민지: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태성: ‘계상정거도’에 대한 설명 내용은 독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폐 속 그림을 확대해서 실기로 하자. …………… ④

민지: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서연: 그러면 지폐 속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신도록하자. …………… ⑤

[3~5]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우리 모듬은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인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하기로 했지? 조사한 자료를 선별해 보자.

학생 2: 며칠 전 ○○신문에 전통 시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아름시장이 전통 시장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어. 아름시장의 특징을 잘 소개했으니 그것을 활용하자.

학생 3: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다른 전국의 전통 시장 분포에 대한 내용은 아름시장의 특징과 상관이 없으니 그것은 빼고 활용하자.

학생 2: 그래. 내가 찾은 한 연구 보고서에 있는 설문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전통 시장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름시장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설문 결과를 포함하면 좋겠어.

학생 1: 좋아.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자. ○○신문 기사의 일부와 연구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자.

학생 2, 3: 그래, 그렇게 하자.

(나)

최근에 여러분은 전통 시장에 가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네요. 아마도 시장이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 하지만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인 아름시장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름시장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 시장이 대형 매장보다 불편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 며칠 전 ○○신문에 아름시장이 전통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한 우수 사례로 실렸을 정도니까요. 이것은 아름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지향하며 노력한 결과이지요. 신문에 소개된 것처럼 아름시장에는 장보기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원하는 품목을 대신 구매해 주고 배달까지 해 줍니다.

㉢ 아름시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밤에 열리는 '야금장터'도 아름시장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형 매장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장을 볼 수 있지만 아름시장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소비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주 금요일에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것이지요. 야금장터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이 만든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저도 그곳에 관심이 생겨 가 보았는데 예술가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많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공연도 열어 소비자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렇듯 아름시장은 기존 전통 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와 시장에 문화를 접목하려는 시도로 재탄생한 시장입니다.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도 아름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의 자료 선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비교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② 발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인지 점검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③ 자료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파악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④ 자료의 수준이 청중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고려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⑤ 자료가 화제의 특징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지 판단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4.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새롭게 여겨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발표자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 발표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③ ㉢: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④ ㉣: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발표자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다.
- ⑤ ㉤: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권유하기 위해 한자 성어를 활용하고 있다.

5. 다음은 (나)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나)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청자 1: 아름시장에서 장보기 도우미를 도입하고 야금장터를 열었다고 했는데, 이진 대형 매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나도 생각해.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매출이 늘게 될 테니까.

청자 2: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신문 기사를 대비하여 아름시장의 특징과 성공적인 변화 양상을 전달한 것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발표 내용대로 나도 아름시장의 장보기 도우미나 야금장터가 전통 시장에 관한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전통 시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

청자 3: 아름시장의 새로운 시도 중 장보기 도우미에 대한 발표 내용에는 쉽게 공감이가.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야금장터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시장을 활성화하려 했다는 데는 공감이 가지 않아. 단순한 볼거리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 ① 청자1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 내용에 공감하면서 아름시장의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청자2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의 내용 구성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발표 내용을 듣고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 ③ 청자3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청자1과 청자3의 반응으로 볼 때, 야금장터를 예로 들어 아름시장의 특징을 설명한 것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군.
- ⑤ 청자2와 청자3의 반응으로 볼 때, 장보기 도우미를 예로 들어 아름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한 발표 내용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슈퍼마켓에 가면 일부 식재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가 무엇인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글을 쓰기로 했다.

(나) 학생의 초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농산물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시를 볼 수 있다. 이 표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에 의한 것인데, 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 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먹는 사람들이 많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도입은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계속 늘고 있는 데 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한 농산물'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은 외관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인증 표시가 ㉠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인증 표시는 세 가지로 ㉡ 나뉘어진다. 유기농 인증 표시는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임을 뜻한다. ㉢ 그러나 무농약 인증 표시는 유기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저농약 인증 표시는 유기 합성 농약을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 사용 ㉣ 기준에 1/2 이하로,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1/2 이내에서 사용하되 제조제는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에 붙인다. 단,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은 중단되었고 이미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 2015년까지만 유효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소비하는 것이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 실감하는 길이다.

6.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 ②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이다.
- ③ 글의 화제는 개인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도 지닌다.
- ④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 ⑤ 일상생활에서 파악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7. 다음은 [A]를 쓰는 과정에서 세운 글쓰기 계획과 그 계획을 점검·조정한 결과이다. [A]에 비추어 볼 때, ㉠~㉥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글쓰기 계획 | 점검·조정의 결과 |
|--|---|
|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해야겠어. | 독자들은 인증 표시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등장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 |
|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느는 것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거론해야겠어. |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조사한 결과가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그 대신 인증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 |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글의 화제로 제시해야겠어. |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글의 첫 문단에서 설명했으므로 인증 표시 제도 운영의 의의를 서술했다. ㉢ |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기준도 함께 설명해야겠어. | 인증 표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통과의 어려움을 분류 기준과 함께 설명했다. ㉣ |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바르게 아는 것의 의의를 제시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인증 표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부착될'로 고친다.
 ② ㉡: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나뉜다'로 고친다.
 ③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기준의'로 고친다.
 ⑤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실천하는'으로 고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 (가)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를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리 토끼' 그림

○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

○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 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사고를 해 왔던 스스로를 반성했다.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 얼마 전 모둠 활동 중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워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 선입견 없이 다시 보니 토끼로도 보여 신기했다. 학문 탐구에서 대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⑤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 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

전공 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 어떤 실습인지 궁금했는데, 대학교 선배들과 모듬을 이루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분석한 후 계획을 세우고 글의 일부를 써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번 체험은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이번 전공 체험 교실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었다. 전공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예전에 비해 줄었고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1.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기+어 → [기여]

㉡ 살피+어 → [살피]

㉢ 배우+어 → [배워]

㉣ 나서+어 → [나서]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어제 뭐 했니?
B: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감기 걸렸다면?
B: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잡졌어.
- ④ ㉡ [A: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아주 나빴어.
- ⑤ ㉢ [A: 너 오늘도 바빠?
B: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

13.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더-하다

I ㉠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II 동사

① ㉡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② ㉢ 【…을】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덜-하다 형용사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 II ②’이다.

1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 단백질 분해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어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며,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다.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尿素)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이들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

각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필수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즉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 높다.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을 말한다. 가령, 가상의 P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이때 A가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

* 몰: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체내 단백질을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의 축적을 막는다.
- ② 유비퀴틴이 결합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아솜이다.
- ③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
- ④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결합 순서는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른다.
- ⑤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중에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수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 ②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여 얻어진 필수아미노산의 일부는 단백질 합성에 다시 이용되겠군.
- ③ 체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섭취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되겠군.
- ④ 제한아미노산이 없는 식품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함유되어 있겠군.
- ⑤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반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이 줄어들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하겠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상의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 데 필수아미노산 A, B, C가 각각 2몰, 3몰, 1몰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가), (나), (다)에서와 같이 A, B, C의 공급량을 달리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가): A 4몰, B 6몰, C 2몰
 (나): A 6몰, B 3몰, C 3몰
 (다): A 4몰, B 3몰, C 3몰

(단,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분해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이 없겠군.
- ②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
- ③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겠군.
- ④ (나)와 (다) 모두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이 B가 되겠군.
- ⑤ (나)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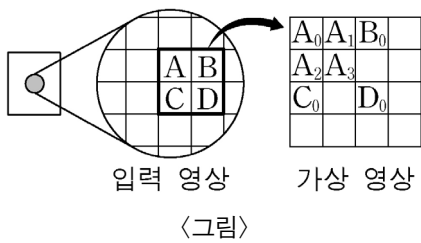
1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을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이 높다.
- ②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 ③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은 높이가 매우 높다.
- ④ 잘못을 시정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 ⑤ 친구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름이 높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n \times n$ 개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면, 모니터에 있는 $n \times n$ 개의 화소에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된다. 하지만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영상이 표시될 영역의 화소와 일대일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2n \times 2n$ 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화소값을 채운다.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가상 영상의 $A_0 \sim A_3$ 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한다. 나머지 화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입력 영상을 확대한 가상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 ‘확대 복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A_0 \sim A_3$ 모두가 같은 밝기로 표시되므로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한다. 확대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 ‘선형 보간법’이다. 이는 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D는 각각 A_0, B_0, C_0, D_0 위치에만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우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A_3 의 화소값을 A_3 과 인접한 A_0, B_0, C_0, D_0 의 평균값으로 채우고, A_1 은 A_0 과 B_0 의 평균값으로, A_2 는 A_0 과 C_0 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빈 화소의 값이 인접 화소의 평균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인접 화소들 사이의 명암 대비가 약해져서 모자이크 효과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반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frac{n}{2} \times \frac{n}{2}$ 의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을 채운다. 이때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한 칸씩 건너뛰면서 화소를 선택해 가상 영상의 화소에 복사한다. 이러한 ‘선택 복사 방법’을 쓰면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왜곡되어 보인다. 특히 글자와 같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흑백의 영역이 뚜렷이 구별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 변한다. 따라서 입력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우는 ‘영역 축소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

러나 이 방법은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명암 대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영상의 화소값은 밝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② 디지털 영상의 해상도는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 ③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밝을수록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많아진다.
- ④ 디지털 영상에서 두 화소의 화소값 차이가 클수록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
- ⑤ 영상을 확대, 축소할 때 입력 영상은 가상 영상으로 변환되어 모니터에 표시된다.

21. 윗글의 <그림>에 ㉠, ㉡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적용하면 A값과 B값의 차이가 없을 때, A_1 값과 B_0 값은 차이가 없다.
- ② ㉠을 적용하면 A값과 C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_0 값과 A_2 값은 차이가 있다.
- ③ ㉡을 적용하면 A값과 C값의 차이가 없을 때, A_0 값과 A_2 값은 차이가 없다.
- ④ ㉡을 적용하면 A값과 B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_0 값과 A_1 값은 차이가 있다.
- ⑤ ㉡을 적용하면 A값~D값이 모두 같을 때, A_3 값은 인접한 화소의 화소값과 차이가 없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00×100개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의 중앙에는 밀변이 50개의 화소로 구성된 검은색의 정삼각형이 있고 입력 영상의 바탕색은 흰색이다. 이 입력 영상을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 확대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하고,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하였다.

- ① ㉠에서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에 비해 모자이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② ㉠에서는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는 것이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시간이 길다.
- ③ ㉡에서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정삼각형의 윤곽선 부분은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
- ④ ㉡에서 ‘선택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 ⑤ ㉠과 ㉡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가상 영상들의 화소수는 서로 다르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 개선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3.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24.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2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②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 ③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 ④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⑤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A]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흠 머흠
골을 움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

얹음새 같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이윽한: 시간이 지난.
* 길경: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단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셈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단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 이태준, 「파초」-

* 챙: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 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 애고기도 뉘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쁨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슬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A]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라.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며 삼고초려한 유향 속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대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긋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생이 [B]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감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감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총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건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
 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총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
 고 바빠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 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조대: 낚시터.
 * 명감: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

34.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총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36.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꿀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
-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 ④ ㉢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에 ㉠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도 함께 사라졌군.

37. ㉠의 화자에게 ㉡를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곰뽕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듯이, 네 재주로도 할 일은 있을 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 ②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고 하듯이, 운수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아라.
- ④ ‘차면 넘친다’라고 하듯이, 지금 너의 피로움은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줄이면 나아질 거야.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듯이, 너의 용기는 무모하니 현실을 직시하면 성공할 날이 곧 올 거야.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과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축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혀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라.

“한 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동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과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 다른 데 정혼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독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떠룩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리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작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뚝뚝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새벽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고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담」 -

* 당학: 당나라의 학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질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리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윳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과'를 '나라를 쪼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빛'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탑』)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탑』 -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白鴈)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이제나 잇자 한들 눈에 절로 밝히거늘 설위 아니 그리워할쏘나
 ㉡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원수(怨讎)가 원수 아니라 못 잇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처(徙宅忘妻)는 그 어떤 사람이고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라
 무심하고 쉽게 잇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칠쏘나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 가니
 ㉢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고황(膏肓)에 든 병을 편작(扁鵲)인들 고칠쏘나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連理枝) 수풀 아래
 나무 엮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天上)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시고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 진초: 진나라, 초나라 지역. 매우 먼 곳을 말함.
 * 총명: 듣거나 본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으로,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 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청조: 신녀 서왕모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
- ㉡ 사택망처: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이사를 할 때 아내를 깜박 잊고 두고 가는 것.
- ㉢ 사광: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악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률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음.
- ㉣ 편작: 전국 시대의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함.
- ㉤ 비익조: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 ① ㉠을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② ㉡을 활용한 것은, ‘사택망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임을 잇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③ ㉢을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 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 ④ ㉣을 활용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⑤ ㉤을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임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출수형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유서연입니다. 박사님의 책 『화폐 속 문화』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지에 실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 왔는데요. 먼저, 천 원권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사: 그러죠.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 네. 앞면엔 퇴계 이황, 뒷면엔 도산 서원이 있어요.

박사: 맞아요. (천 원권 뒷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학생: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박사: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박사: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학생: 와!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사: 그렇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답니다.

학생: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만 원권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들어 있나요?

박사: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만 원권을 가리키며) 여기 세종 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2장이 있어요.

학생: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뒷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박사: 맞아요. 이것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일부예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별자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별의 밝기 까지도 표시했지요. 조선 시대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학생: 와! 지갑 속에 우주가 들어 있었군요.

박사: 참 신기하죠? 평소에 저는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진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박사는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지: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을 바탕으로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했지?

서연: 그럼 인터뷰의 내용이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에 관한 거니까 표제는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민지: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태성: 그건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 …………… ②

민지: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서연: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테니 그 의미를 추가하여 설명하면 좋겠어. …………… ③

민지: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태성: ‘계상정거도’에 대한 설명 내용은 독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폐 속 그림을 확대해서 실기로 하자. …………… ④

민지: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서연: 그러면 지폐 속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 ⑤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수필 「강희자전과 감투」를 변형하여 재구성한 상황을 바탕으로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통해 논제와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고 입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쌀을 사기 위해 책을 팔러 간다. 책방 주인은 책값으로 오십 원을 매기며 되팔 때 가격이 칠십 원이어서 오십 원도 높은 가격이라고 강조한다. 몹시 아끼던 책을 판 ‘나’는 간신히 칠십 원을 마련해 되사러 가지만 주인은 오백 원에 팔아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나’의 판매 요구를 거부한다.

학생 1: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 2: 저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값은 판매 당시의 여건이나 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구입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제 양측의 반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1: ‘나’와 책방 주인이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을 팔 때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선택권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구입 가격의 열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적정한 이윤 추구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윤 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 2: 책방 주인이 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나’의 상황까지 고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매자 각각의 형편에 따라 책값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 1: [가]

3.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②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③ 어떤 현안에 대하여 그것이 지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④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⑤ 어떤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이 더 유용한 가치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4. 토론의 흐름에 따라 상대측을 반박하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책방 주인은 ‘나’의 상황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알았다 하더라도 책을 사고팔면서 그것을 모두 고려하여 책값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② 상대측에서 ‘나’가 책을 팔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설득하려는 것이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③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④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책방 주인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책값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 ⑤ 저는 ‘나’가 책을 팔고 살 때 책방 주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매자들마다 책값을 달리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은 저의 발언을 왜곡한 것입니다.

5. 다음은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되도록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이윤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지속적인 이윤 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1989년 개인 서비스 요금 자율화 이후 설령탕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결국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다. 이는 ㉣ 물건의 가격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 물건의 가격만 높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 ① ㉠: ‘학생 1’과 ‘학생 2’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였군.
- ② ㉡: ‘학생 2’의 입론과 ‘학생 1’의 반론에서 공통으로 인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군.
- ③ ㉢: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가 현실과 어긋남을 보여 주는 사례를 들고 있군.
- ④ ㉣: ‘학생 1’의 반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를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군.
- ⑤ ㉤: ‘학생 1’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 쓰기

■학생의 초고

밥상에 오르는 곡물이나 채소가 국내산이라고 하면 보통 그 종자도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벼, 보리, 배추 등을 제외한 많은 작물들의 종자를 수입하고 있어 그 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양파, 토마토, 배 등의 종자 자급률은 약 16%, 포도는 약 1%에 불과할 정도다. 또한 청양고추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음에도 현재는 외국 기업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국내 채소 종자 시장의 경우 종자 매출액의 50%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종자를 심고 키우기 어려워질 것이고 종자를 수입하거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상 이변 등으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종자 문제가 식량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종자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면서 상당수 우리 종자의 소유권과 우수 육종 기술도 함께 넘어간 사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종자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 육성에 소홀했다는 데 있다.

① 따라서 국내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종자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처럼 종자 산업은 식량 안보 면에서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생명 공학과의 접목을 통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종자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든다.
- ②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 ③ 현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④ 논지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과 자신이 내세운 대안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 ⑤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7.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가) 국내 종자 기업의 종자 개발 기술력이 선진국 종자 기업의 기술력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음에도 품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최대 종자 기업의 경우, 연구 개발 투자액이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총 연구 개발 투자액보다 약 20배 이상 많았다.
- (나) 특정 바이러스에 강한 새로운 콩 종자가 개발 보급되어 농가의 콩 수확량이 크게 늘면서 토종 종자가 밀려나고 전국의 콩 종자가 대부분 새로운 종자 한 가지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다른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새 품종의 콩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전국에 콩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조 건>

-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할 것.
- (나)에 드러난 현상에서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따라서 국내 종자 기업들이 해외 종자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려면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내 종자 수요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토종 종자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 ② 따라서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연구 개발 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만 외래종을 도입하여 종자를 개발하면 다양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토종 종자로 단일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 ③ 따라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종자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되 기업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특정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된 종자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④ 따라서 종자 개발에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개발된 종자의 장점만을 중시하여 종자를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종자의 개발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⑤ 따라서 해외 종자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종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토종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에 지원하기보다는 외래 종자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8. 밑글의 내용을 학교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발표 전략 | 실행 계획 |
|---------------------------------------|---|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의 화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시작한다. | 도입에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이 발표의 화제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겠어. …… ① |
| 청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호 작용을 시도한다. | 흔히 먹는 곡물과 채소를 언급하며 그 종자가 어느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반응을 살펴야겠어. …… ② |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외국에 개방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 현황을 그래프로 제시해야겠어. … ③ |
| 생생한 전달을 위해 적절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전문가가 식량 안보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 줘야겠어. …… ④ |
|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하도록 화제와 청중의 관련성을 부각한다. | 종자 산업이 부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안보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어.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가)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를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리 토끼’ 그림
○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
○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 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사고를 해 왔던 스스로를 반성했다.
-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 얼마 전 모둠 활동 중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워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 선입견 없이 다시 보니 토끼로도 보여 신기했다. 학문 탐구에서 대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⑤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 전공 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 어떤 실습일지 궁금했는데, 대학교 선배들과 모둠을 이루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분석한 후 계획을 세우고 글의 일부를 써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번 체험은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이번 전공 체험 교실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었다. 전공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예전에 비해 줄었고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다[익따], 읊는[음:는], 닦지[닥찌], 읊기[읍끼], 밟는[밤:는]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는]’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닦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밟는[밤:는]’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12.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13.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엇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넙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14. <보기 1>의 학생 의견과 관련된 한글의 제자 원리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1>

학습 활동: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 생각한 바를 각자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학생 1: ‘ㄱ’의 글자 모양이 그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된다니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 학생 2: 휴대 전화 자판 중에는 ‘·, -, |’를 나타내는 3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어서 참 편리해요.
- 학생 3: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관계가 <A>-<A에 획 추가>-<AA>로 글자 모양에 나타나 있어서 참 체계적인 문자인 것 같아요.
- 학생 4: ‘ㅁ’과 ‘ㅂ’에 획을 추가해서 만든 자음자들은 ‘ㅁ’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포함된 ‘ㅁ’ 모양은 이들 자음자들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 것이에요.
- 학생 5: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서도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글자 수가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보기 2>

한글의 제자 원리

가.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나.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
다.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
라. 기본자 외의 8개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 ① 학생 1 - 가, 나 ② 학생 2 - 다, 라
- ③ 학생 3 - 나, 다 ④ 학생 4 - 나, 라
- ⑤ 학생 5 - 가, 라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더-하다

I ㉠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II 동사

① ㉡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② ㉢ 【…을】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덜-하다 형용사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 II ②’이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중세 국어] ㉠ 부텃 마를 ㉡ 듣즈보디 [현대 국어] 부처의 말씀을 듣되 |
| 학습 자료 | [중세 국어] 날굽 ㉢ 거르물 거르샤 ㉣ 니르샤디 [현대 국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이르시되 [중세 국어] 니르고져 흥 ㉤ 배 이셔도 [현대 국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
| 학습 활동 |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input type="text"/> [가] <input type="text"/>) |

- ① ㉠: 관형격 조사로 ‘시’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본위에서 자신을 ㉡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

으로 ㉔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㉕ 과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㉖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지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7.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18. 밑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19.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0. ㉑~㉕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㉒: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㉓: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㉔: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㉕: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

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늘어선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A]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뉘뉘던고

㉠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엇씨하야 적당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2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

[A] 외나모 뼈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이 버혀 내여

실7티 플터이서 뵈7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하러니

산중을 밧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하니

영룡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윈(怨)하느 듯

- 정철, 「관동별곡」 -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엇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중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 부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꺾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A]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 하나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하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니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B]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가 실 곳이 또한 머오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 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왈,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오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중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올 것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C]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중략)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왈,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 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 왈,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였으며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

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서 장안으로 가니라.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남자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김전이 왈,

“네 고향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며 누 집 딸이라 하나뇨?”

남자 왈,

“오 세에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에 유리(流離)하옵다가 겨우 의탁한 몸 되었사오니 고향과 부모의 성명은 모르오되 나이 찬 후에 혹 듣사오니 김 상서의 딸이라 하오며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김전의 아내 장 씨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김전에게 왈,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죽은 우리 딸과 같삽고 연치(年齒) 또한 같사오되 다만 김 상서의 딸이라 하니 그 근본을 자세히 모르오나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으니 혹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자연 비창(悲愴)하오니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옹계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回報)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경액: 신선이 마신다는 신비로운 약물.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②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④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하여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 ⑤ ‘장 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 원리는 ‘천상계 - 지상계 - 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

- ① [A]에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②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③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④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과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촉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혀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라.

“한 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동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과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 다른 데 정혼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독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독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굽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떠룩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독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리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작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뚱뚱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새벽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담」 -

* 당학: 당나라의 학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질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리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윳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과'를 '나라를 줌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빛'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탑』)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탑』 -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끊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림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무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여기저기로.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출수형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

해설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B]**

해설사: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C]**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D]**

진행자: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E]**

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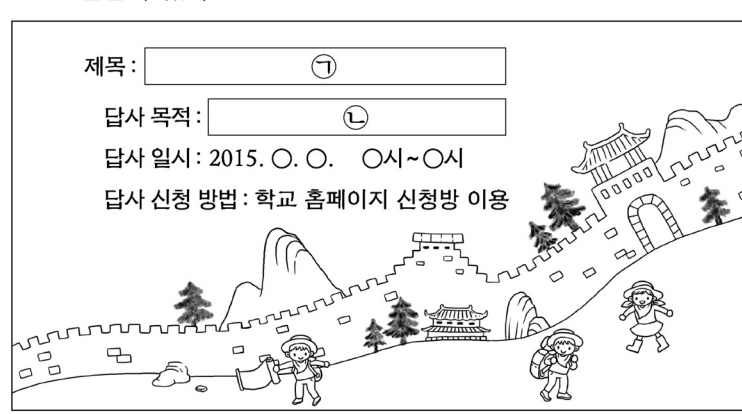
학생 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

답사 목적: ㉡

답사 일시: 2015. O. O. O시~O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희토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네. 그러시군요. 희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희토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원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잘 아시는군요.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57부터 71까지의 원소와 그 외의 2개 원소를 합친 17개의 원소를 가리킵니다. 희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

[A] 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그럼 다음으로, 희토류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 주며) 희토류 중 하나인 이트륨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희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에 발광 재료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희토류 중의 하나인 네오디뮴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희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희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면 2010년의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약 13만 톤이었는데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토류는 특정 광석에만 존재하며, 광석에서 분리하여 정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희토류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토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희토류의 개념과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제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희토류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희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A]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 ② 발표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발표를 시작할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대상의 특성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요약하고 있다.

4. 다음은 학생의 발표 연습을 들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 중 학생이 발표에서 실제로 반영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 발표 목적을 청중들에게 환기시키고 ㉡ 산업 분야에서의 희토류의 역할을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 희토류와 관련된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 희토류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갖기를 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5. 다음은 발표를 들은 청중이 발표자에게 한 질문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1 :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을 사용한 TV 스크린 제품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비교할 때 실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①

학생 2 : 네오디뮴을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네오디뮴이 포함된, 강한 자성을 갖는 화합물을 활용한 다른 제품 사례는 없나요? ②

학생 3 :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③

학생 4 : 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생산 기술을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④

학생 5 : 2050년에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소개하였는데요. 미래의 희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다른 연구 자료는 없나요? 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계획

- 처음
 -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특성 서술 ㉠
 - 앱 개발 시 부딪히는 난점 언급 ㉡
- 중간
 - 공공 데이터의 개념 정의 ㉢
 - 공공 데이터의 제공 현황 제시 ㉣
 - 앱 개발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가 갖는 장점 진술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 ㉤
- 끝
 -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
 -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 언급

[가]

초 고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 사람들이 여행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한 번에 여행 코스를 짜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 도심에 주차장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주차장을 쉽게 찾아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막상 앱을 개발하려 할 때 부딪히는 여러 난관이 있다. 여행지나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도 문제이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공공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800여 개 공공 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 늘리고 있다.

공공 데이터가 가진 앱 개발 분야에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 시행된 정책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가 많다는 점이다. 앱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는 대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의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만약 여행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에서, 주차장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 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다.

[A]

6.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작문 계획'의 [가]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공공 데이터는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 ② 공공 데이터는 자본과 아이디어가 부족해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 개발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앱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 ④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 그러므로 앱 개발 시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다.
- ⑤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을 할 때 부딪히는 자료 수집의 문제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도심에서'로 고친다.
- ② ㉡: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친다.
- ③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늘리고'로 고친다.
- ④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시행한'으로 고친다.
- ⑤ ㉤: 사동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들지'로 고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버스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② 새 소리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③ 나뭇잎들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④ 가을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⑤ 친구들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옹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짜이다]
- ㉢ 솟도 → [숯또], 옷고름 → [온꼬름]
- ㉣ 닳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홀꺼나]

- ①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값다 → [깎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얕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저기에 있잖아. 벡타이를 매고 있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 [문]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 [조]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동] [(...과)...을]

-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②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레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 한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레의 원리에는 돌림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 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m(뉴턴미터)이다.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가령,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고, [가]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N의 힘으로 밀는 상태에서 문이 90° 즉, 0.5π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π J이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 ②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 ③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
- ④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17. [가]에서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 ②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 ③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 ④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방향이 같다.
- ⑤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원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돌고 있는 원판 위의 두 점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만큼 떨어져 O, 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A, B에는 각각 OA, O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 ①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②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④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300~1,100 nm*, 저마늄은 800~1,600 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 nm: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
- ②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 ③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 ④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100 nm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
- 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 ② ㉠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 ③ ㉠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 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 ④ ㉠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 ⑤ 흡수층에서 ㉠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2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예비 실험: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800 nm 파장의 빛을 길이가 1m인 광통신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입사시키고, 다른 쪽 끝에 실리콘으로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때 100 nA의 전류가 측정되었고 증배 계수는 40이었다. 작동 온도는 0℃, 역방향 전압은 110 V였다.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 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 본 실험: 동일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가지고 작동 조건을 하나씩 달리하며 성능을 시험한다. 이때 나머지 작동 조건은 예비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① 역방향 전압을 100 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 ② 역방향 전압을 120 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 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 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2.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24.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형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ㄴ)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 (ㄱ)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일 것이다.
 - (ㄴ)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ㄴ)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26.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 ② 그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졌다.
- ③ 그는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 왔다.
- ④ 그의 강연에 자신의 주장이 빠져 모두 아쉬워했다.
- ⑤ 우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㉔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㉕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㉖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㉗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㉘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㉙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8. ㉚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취하였다
- ② ㉡: 부가하는
- ③ ㉢: 지시한다
- ④ ㉣: 형성되었을
- ⑤ ㉤: 경유하여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현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①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사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지금의 동서-은 연신 뼈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속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결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㉔ 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옥희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될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흥,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흥,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㉕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흥,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㉖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㉗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무(裸木)」-

31.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의 '남편'의 행동은 ㉔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㉑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㉔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㉒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㉔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㉒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㉔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㉔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㉒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32. [고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②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③ [고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④ [고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㉘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희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㉘(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장수 A :가만 계세요. 만약 내가 이 소를 샀다가두 나중에 탄로가 나면.....

개똥이 : 멧덩구리 같으니라구! 그런 걱정은 여기서 할 게 아냐! 자네가 입을 닥치구 있구 내가 입을 딱 썼어 버리구 있으면 누가 알아. 어느 개아들 늠이 안단 말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말어.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밭에 갔다 오는 말뚱이 나타난다. 말뚱이는 빈 지계를 졌다. 개똥이와 소장수를 보고 무루청한다.*

말뚱이 : (길에서) 개똥아 너 거기서 뭘 해? 그 사람은 누구야?

개똥이 :허긴 뭘 해. 아모것두 아냐. 소에 꼴 주고 있어.....

3장

이때에 또 국서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말뚱이는 소 옆에 와서 좀 ㉠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마름 앞서고 그 뒤에 국서, 그리고 그 처 헛간으로 들어온다.

마름 :그러면 저 벼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돌다 리끼에 있는 논임자 곳간으로 저 내어다 두게.

국서 : 네.

마름 :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덟 말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와서 갠진 것을 덜면 꼭 닷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던 말야!

말뚱이 : (옆에서 듣고 싶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째야 한단 말요?

마름 : 금명간에 다 해다 갠란 말야! 이늠이 왜 어른 말하는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 원 버르장머리 없게.국서 잘 듣게. 대관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일른 줄 알아?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다고.그런 게 되면 실상 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는 여태 묵은 것은 다 맡겨 봐야지. 그렇잖으면 내년엔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국서 :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쭈는 게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름 :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갖다 갠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냐. 사정없이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각해!

말뚱이 :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었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 :이늠 말뚱아!

마름 : 이 망할 자식 보게. 늠은 사람 앞에 막 샷대질을 허구 이늠이 덤비지! 에잇, 고약한 늠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뚱이 : (악을 쓰고)아버지 좀 봐요. 노.....농지령이란 건 뭘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국서 :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늠, 버릇없어!

마름 :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이라두 빼어 가두 빼어 가구 솥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흥 저늠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중략)

국서 : (말뚱이더러 노하여) 이늠아 나가거라! 소는 그예 너 늠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 이 빌어먹을 늠! 왜 아까 마름한테는 덤뵈어?

처 : 이늠아, 너는 허는 짓짓이 미런스럽더라.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말뚱이 : 아니야, 가만 있어. 내 소 팔어먹은 늠은 알어요. 저 그 쇠똥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소장수 B : 짧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

말뚱이 : 똥똥허구 머리를 깎구..... 음! 그렇지! 이늠을 내가 죽여 버릴 테야.

국진 : 네가 아니?

말뚱이 :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짧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소장수 B : 그럼 그건가 봅네다. 아무러면 불 안 뎌 굴뚝에서 연기 날려구요. (퇴장)

국서 : 저런! 육싹힐!

처 : 이늠아. 똑똑이 못 본 일이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늠을 소도적늠으로 몰라구 그래?

국서 :아냐. 그늠일는지도 몰라. 그늠이 소 팔어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 유치진, 「소」 -

* 무루청하다: '무르춤하다'의 잘못. 뜻밖의 사실에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듯이 하여 행동을 갑자기 멈추다.

3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뚝이’는 ‘개똥이’와 ‘국서’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 ② ‘국서’와 ‘말뚝이’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마름’에 대해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 ③ ‘국서’는 ‘개똥이’의 예전 행동을 근거로 ‘말뚝이’의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말뚝이’는 ‘소장수 B’가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여 ‘개똥이’가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겼다고 믿고 있다.
- ⑤ ‘마름’은 도지 값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논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국서’ 부자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생긴 ‘말뚝이’와 ‘마름’ 간의 불화 때문에 ‘마름’이 ㉡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
- ② ㉠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 채고 ‘말뚝이’가 ㉡을 대비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 ③ ㉠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뚝이’에 대한 증오심을, ㉡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 ④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⑤ ㉠으로 인해 ‘말뚝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라는 말을 듣고 ‘국서’는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소』는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용어의 사용,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의 제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 등을 통해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나 관습 그리고 농촌 사회에 내재된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 ① ‘소’, ‘울타리’, ‘빈 지게’, ‘헛간’ 등을 연극적 장치로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미고 있군.
- ②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군.
- ③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과 ‘국서’에게 지시하는 ‘마름’의 행동을 통해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당대의 농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늙은 사람 앞에 ~ 고약한 늑 같으니!’,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등의 대사를 통해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 주는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 니 불쌍한가? 명천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어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음은 없는지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았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김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라, 별나라,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라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에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냐?”
 “어디 좀 알아보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달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총 철환 달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뿔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아뢰어,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기를,
 “㉠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도 좋은 활이 습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나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이웃나라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이다.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별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 주리라.”
 하고, ㉡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작자 미상, 「토끼전」-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들이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떡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복년: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믿겠습니까: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중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하여 궁중 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겹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E]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출수형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

해설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B]**

해설사: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C]**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D]**

진행자: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E]**

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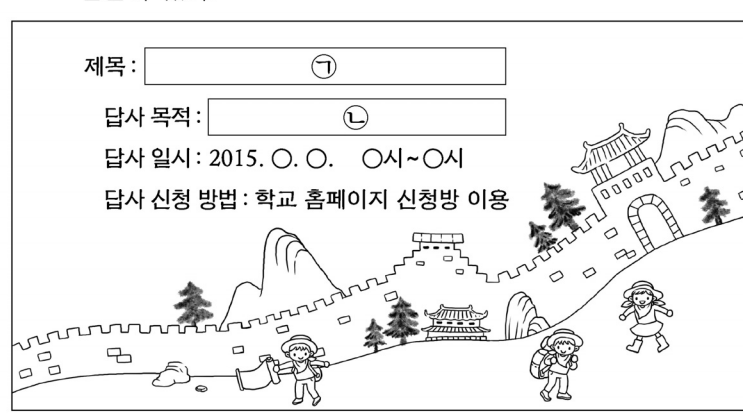
학생 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

답사 목적: ㉡

답사 일시: 2015. O. O. O시~O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20××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⑤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4.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 전략 | 강점 부각 |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
|-----------|-------|--------------|
| 예상 평가 항목 | | |
| 대회 취지 부합성 | ㉠ | ㉡ |
| 대회 개최 여건 | ㉢ | ㉣ |
| 대회 운영 능력 | ㉤ | |

- ① ㉠: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 준다.
- ② ㉡: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③ ㉢: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 ④ ㉣: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 ⑤ ㉤: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5.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② A시가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③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④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⑤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므로 A시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8] (가)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및 계획

- 작문 상황: 일회용품을 즐겨 쓰고 쉽게 버리는 등 값싸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 생활이 가져오는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 생활의 관점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글을 쓰려 한다.
- 주제문: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을 하자.
- 개요
 - I. 서론
 - II. 현재의 소비 생활
 -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
 -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
 -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
 -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 III. 대안: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
 - 1. 실천 방법
 - 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 나. 제품 사용 시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함
 - 2. 기대 효과
 - 가.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
 - 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
 - IV. 결론: 소비 생활의 관점 개선 촉구 및 제언

(나) 인터뷰

질문자: 제도적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것이 있나요?
전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 ㉠ 제품에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문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증하는 것도 있고,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직접 표시해서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신문 기사

최근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줄인 음료수를 개발하고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출시하였다.

6. (가)의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II의 내용을 항목화하려고 한다. 정보 간의 관계와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항목'과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항목 | 내용 |
|---------|-----------|
| ① 1. 양상 | — ㉠, ㉡ |
| 2. 문제점 | — ㉢, ㉣ |
| ② 1. 현황 | — ㉠, ㉡ |
| 2. 종류 | — ㉢, ㉣ |
| ③ 1. 실태 | — ㉠, ㉡ |
| 2. 원인 | — ㉢, ㉣ |
| ④ 1. 목적 | — ㉠, ㉡, ㉢ |
| 2. 필요성 | — ㉣ |
| ⑤ 1. 대책 | — ㉠, ㉡, ㉢ |
| 2. 심각성 | — ㉣ |

7. ㉠, ㉡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②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③ 작문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다.
- ⑤ 예상 독자의 성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다.

8. (나), (다)를 활용하여 (가)의 III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III-1-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III-1-가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 가운데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III-2-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환경 표지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④ III-2-나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⑤ III-2-나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 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버스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② 새 소리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③ 나뭇잎들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④ 가을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⑤ 친구들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보 기>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ㄴ]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ㄴ]으로 발음한다. ㉢
 - [ㄱ,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ㄱ, ㄴ]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ㆁ]으로 발음한다. ㉤

| | 예 | 적용 내용 | 발음 |
|---|------|-------|-------|
| ① | 여덟+이 | ㉠ | [여더리] |
| ② | 몹+을 | ㉠ | [목슬] |
| ③ | 흙+만 | ㉡, ㉢ | [흑만] |
| ④ | 값+까지 | ㉡, ㉣ | [갑까지] |
| ⑤ | 답+하고 | ㉡, ㉤ | [다카고] |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파생어 | 합성어 |
|----------------|-----|---------------------|
| ㉠만 충족한 경우 | ㉠ | ㉡ |
| ㉡만 충족한 경우 | ㉢ | ㉣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 | 줄자(줄+자), 눈물(눈+물) |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옷음(옷+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口), 사랑니(사랑+이)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뭐? ㉡ 저거?
 아들: 네, ㉢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그래? 그러면 ㉤ 어제였네. ㉥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시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알았어, ㉦ 우리 아들. ㉧ 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과 ㉤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 ㉠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 ㉡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과)...을]

-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王(왕)이 니르샤디 大師(대사) ㉠ 軒(현) 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 잇고 ㉡ 仙人(선인)이 슬보디 大王(대왕)하 이 ㉢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썩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하야 ㉣ 世間(세간)애 ㉤ 쉽디 못하니 그 썩 軒(현) 님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 蓮花(연화) | 나느니이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 이케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 해짐을 의미한다. ㉣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 되기 때문이다.

17.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18. ㉠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다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9.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 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본다.
-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 ③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 ④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 ⑤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2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플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플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지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이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지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6.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2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취하였다
- ② ㉢: 부가하는
- ③ ㉢: 지시한다
- ④ ㉢: 형성되었을
- ⑤ ㉢: 경유하여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 ②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③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 ④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리러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길길길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뺨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

다. “동주운아, 노을자야!”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서 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잡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괴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잃었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끽끔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애길 했는데 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흉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잣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컷감 하나 장만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씨: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월날 오늘이다. 오늘 오후[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잡혀 온 다른 동학꾼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正己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속이 나열. 대뜰에는 옆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꿰어앉았고, 그 뒤로 넉넉한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중에 섞여 있다.

수령: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청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십시오.

사령: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끔찍 아니 한다)

사령: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옆의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 달라고 아뢰오.

사령: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 달라고 아뢰오.

수령: 처형해라.

급창: 처형하옵신다.

참령: (병정들더러) 형장(刑場)으랴!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 선 구경꾼들은 와—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려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오: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

최 씨: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 밴 여편네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담박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할머니가 어데 나가게 하시드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영오: 그런데 참 할머니.

최 씨: 오-냐.

영오: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외, 외, (더듬다가) 외증조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예지?

최 씨: 글썸,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데 바루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흙썩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사십 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썸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지자 보름 만엔지 돌아가신걸. 그래서 네 외증조할아버지 제향은 바루 시월 열사흘 날이란다.

영오: 그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 씨: ㉢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웅위해 가지고 사정 바루 건너편 과녁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각금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고는 병정들은 열댓 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마는, 아마 한 이십 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죽— 늘어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었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과녁. 하수는 흑막(黑幕).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과녁에서 넉넉히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 놓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갑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닢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가니?

- 채만식, 「제향날」 -

* 전경: 앞 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 장을 의미함.

3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②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④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넋두리에 해당한다.
- ⑤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 ②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 ③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삿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①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 ②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재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 ④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⑤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 니 불쌍한가? 명천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피와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라, 모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왔으며 움쳐 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마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게서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몰라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라, 별나라,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라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냐?”
 “어디 좀 알아봅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가 성중(楚歌聲中)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달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총 철환 달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림(東林)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고.”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
 라 하겠다. 아뿔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
 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연석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과연(罷宴) 후에 왕께 주왈,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 자연 회복하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불일내(不日內)
 평복(平復)하오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도 믿고
 듣는지라. 즉시 하령하되,
 “출세(出世)하였던 별주부 오래 묵은지라. 법을 좇아 잡아들
 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되,
 “㉠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도 좋은 활이 습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나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
 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
 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
 이때 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
 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
 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 동행한 정분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하리라.”
 하고, ㉡ 즉시 별당을 소쇄(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
 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작이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 하
 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 불가사문어인국: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 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 내고 있다.
- ②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 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느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썬이로다
비 시여 셔근 집을 뒤라셔 곳쳐 이며
옷 버셔 문허진 담 뒤라셔 곳쳐 쓸고
㉡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촌 수하상직(誰何上直)* 뒤라셔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뒤 드르며 논의(論議)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곳튼 얼굴리 편혹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뒤 타시라 홀셔이고
헐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혀려니와
도로혀 헤여히니 마누라 타시로다
㉢ 너 주인 외다 혀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혀야 사되나이다
㉣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혀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동량재: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별감: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 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헐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허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B]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C]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D] 내 눈과 귀를 두겹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E]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는 겸재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정선의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팔경’은 관동 지방을 소재로 한 여덟 점의 산수화로 정선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난다고 평가받습니다. 산수화 연구가에 따르면, 산수화 중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산수화의 ‘환’이라고 합니다.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선은 실제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 생략이나 변형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정취를 부각함으로써 ‘환’을 실현했습니다. ‘관동팔경’의 산수화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굽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삼일포>입니다. 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점경 인물이란 산수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인물인데요, 이들은 주로 명승지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점경 인물을 정선이 산수화에 형상화한 것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관동팔경’의 작품 중 <낙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이 점들이 보이시나요? (대답을 기다린 후) 네, 잘 안 보이시죠.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 이렇게 정선은 자연을 즐기고 있는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제 발표가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한 서적들을 열거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마무리해야지.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⑤ 청중이 발표 대상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선의 산수화의 특징]

- 정선의 산수화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인 ‘환’이 실현되었음. ㉠
- 정선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산수화에 등장시킴. ㉡

[‘관동팔경’의 산수화들]

- <총석정>에서는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더욱 부각함. ㉢
- <삼일포>에서는 수직준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드러냄. ㉣
- <낙산사>에서는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추첨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첨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A]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B]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 1: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하지 않음을 제기하고,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의 문제점을 ㉡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을 옹호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을 지지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이 ㉠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학급 학생들
- 주제: 새로운 광고 기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 촉구
- 글의 구성
 - 1문단: 새로운 광고 기법의 등장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2문단: 검색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3문단: 기사형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4문단: ㉠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A]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를 들 수 있다. 검색 광고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검색어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이다.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되지만, 검색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이용자들에게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광고 기법으로 기사형 광고를 들 수 있다. 형식이나 내용이 기사와 확연히 구분되었던 기존 광고와 달리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말한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전문가 인터뷰나 연구 자료 인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B]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 그러면서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정보를 삽입하여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말미에 ‘글 ○○○ 기자’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를 접할 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 기법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모두

㉠

6.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 회피 경향에 대응해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함을 제시해야겠어.
- ㉡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 예상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상 독자들이 광고를 접하고 있는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7. [B]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 기사형 광고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좋은 물이 장수의 비결

○○ 대학에서는 최근 물과 장수의 관계를 밝힌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 장수 마을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그 지역에서 나는 물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다른 지역 물에 비해 장수 마을의 물은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샘물은 미네랄의 함량이 국내 최장수 마을의 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샘물은 상품화되어 11월 2일 출시된다.

제품 용량 500 ml, 1,000원

- ①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샘물’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샘물’이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출시일과 가격 정보를 제시한 것은, 독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글 ○○○ 기자’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8.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한다. 따라서 기업은 매체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 ② 광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체 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주체적으로 광고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 ③ 기존 광고에 비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기존 광고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매체의 정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④ 검색 대상과 제품이 달라 매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광고들을 강력히 규제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⑤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매체 이용자들에게 착각을 유도한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 어려움에 겪는다고 하시며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푸른 잔디밭이 눈에 ㉡ 떠었다.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 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 그 길을 계속 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라진 잔디가 더 안쓰럽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그 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길 위에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 싹도 생명력을 뿜내며 ㉢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러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춤추며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뎠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 생각해 보면 이 푸른 잔디는 바짝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발길과 추운 겨울도 잔디의 생명력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도 저 잔디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잔디를 보면서 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꼭 ㉤ 이루리라 다짐했다.

9. 초고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연상을 이끌어 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잔디가 밟혀 난 길을 관찰하며 밟혀 사라진 잔디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 ② 잔디가 밟혀 난 길 위에 잔디 싹이 돋은 것을 관찰하며 잔디가 지닌 생명력을 떠올렸다.
- ③ 잔디밭에 함께 모여 자라는 잔디를 관찰하며 잔디가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뎠 온 것에 대견함을 느꼈다.
- ④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하며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가 비슷함을 떠올렸다.
- ⑤ 바짝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 바짝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어려움'로 고쳐야겠어.
- ②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떠었다'로 고쳐야겠어.
- ③ ㉢: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푸르지만'으로 고쳐야겠어.
- ④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또한'으로 고쳐야겠어.
-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꿈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 | ㉡ |
|---|-------------------------|-------------------------|
| ① | 물은 <u>낮은</u> 곳으로 흐른다. |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u>낮다</u> . |
| ② |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u>크다</u> . | 힘든 만큼 기쁨이 <u>큰</u> 법이다. |
| ③ | 두 팔을 최대한 <u>넓게</u> 벌렸다. | 도로 폭이 <u>넓어서</u> 좋다. |
| ④ | 내 <u>좁은</u> 소견을 말씀드렸다. | 마음이 <u>좁아서</u> 는 곤란하다. |
| ⑤ | <u>작은</u>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u>작다</u> . |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안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옹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과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ㅁ스믈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自然히 ㅁ스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번개 구르믈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ㅁ스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과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떡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떡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높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꿰었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높이’는 명사이므로 ‘높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꿰었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분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7. 밑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19. 밑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이 죽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완데 장부의 마음을 둔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채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느니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줄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기술이 있는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피서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덕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덕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와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와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독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랑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여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덕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덕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꿇주린 이리**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덕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중략)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엿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

21.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④ (다)는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22.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 봅시다.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향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과장에 걸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러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획과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겠군.
- ② 「임장군전」에서 향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겠군.
-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겠군.
-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불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으려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2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4.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③ '끓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⑤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25.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③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⑤ (다)에서 김씨 맥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26.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면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저 낱 잡초 우에
잡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
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
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매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함이정: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듩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
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처음부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
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
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밖에는 왜?

동연: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함묘진: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너흰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
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 [B]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물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다!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표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살아간다.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혐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3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혐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 ② 반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 ③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 ④ 반추 동물의 과도한 혐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 ⑤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성장한다.

34. 윗글로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성장하지 못하겠군.
- ② ㉠과 ㉡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 ③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은 ㉢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 ④ ㉡와 ㉢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 산물을 배출하겠군.
- ⑤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하고 ㉢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반추 동물이 섭취한 혐유소와 비혐유소는 반추위에서 (㉡), 이를 이용하여 성장하는 (㉢)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 ①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②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③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반추 동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④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⑤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36.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40. 밑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 이편저편 화류교의(樵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창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B]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썸하러 주주리는 지저권다
 ㉣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둔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 구고두: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서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 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밥과 탕, 반찬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팔밥과 탕,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고를 수 있게 밥과 탕을 두 가지씩 준비한 겁니다.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는 전골 요리에 썼다고 해요.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왕은 이러한 수라상을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왕이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이것은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 아침, 저녁의 수라상까지 합해 왕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한 셈입니다. ㉢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어떤 상궁은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 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상궁은 왕에게 생선을 발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왕은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 음식이 민간의 음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울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 조선의 궁중 음식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수라상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어.
 - ③ 발표 중에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해야겠어.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소원반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③ 왕이 식사한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수라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해 ㉢에 낮것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⑤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제시하였다.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자 1: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명은 두 개만 해서 아쉬웠어.

청자 2: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궁을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의 상궁 중 한 명이 기미 상궁이겠군. 그리고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면, 오늘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청자 3: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했는 것일거야.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겠군.

- ① 청자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2는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자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1과 청자3 모두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자2와 청자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민호'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갈등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민호: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A]

영수: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현지: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민호: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영수: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B]

현지: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생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독서에만 전념하여 가정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4.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민호'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존의 내 의견과,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함께 써야겠어. ①

2문단
○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 ②
○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써야겠어. ③

3문단
○ 나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④
○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⑤

7.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한 경제학자는 ㉠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OECD 국가 간 행복 비교 연구에서는 ㉢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 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① ㉠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바람직한 가족 관계 형성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를 추구할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
- 주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급 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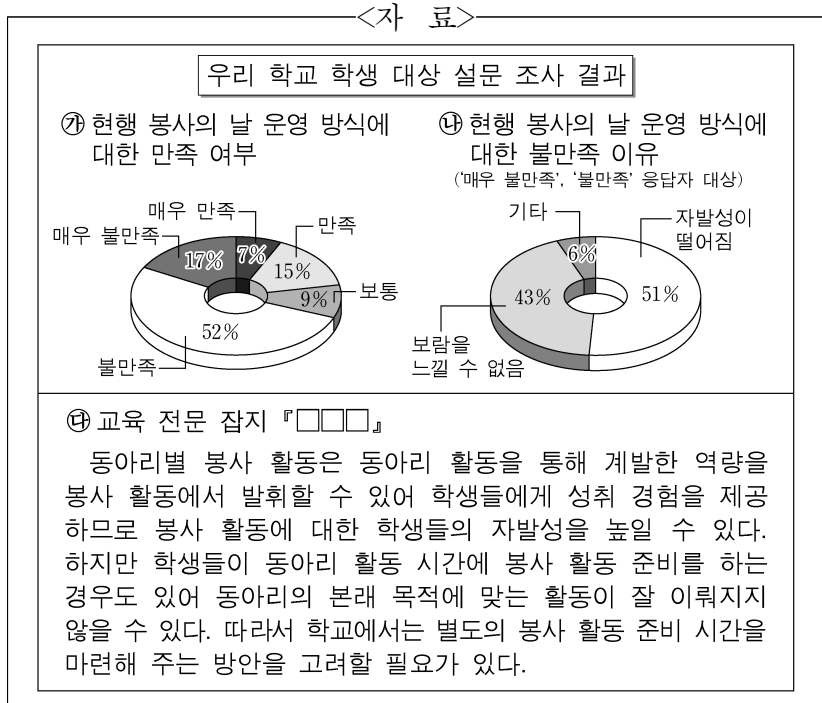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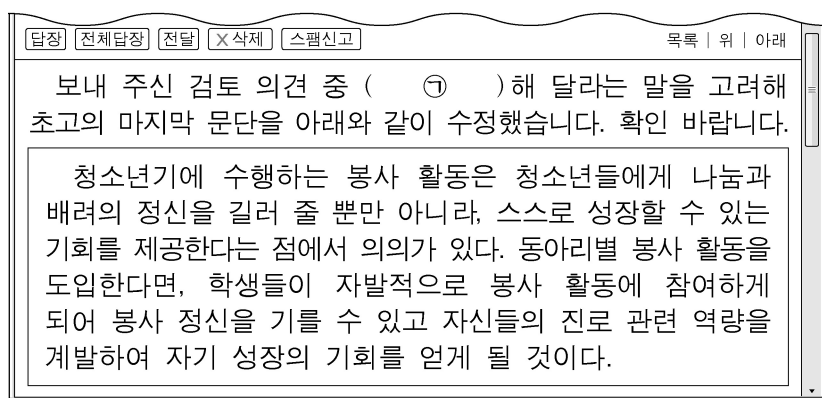
- 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제시하였다.
-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 ②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㉙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어.
- ④ ㉗과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⑤ ㉘와 ㉙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㉑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추가
- ②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③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
 • 놋뎨 누구(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훈 벗은 누구고(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① |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
| ② |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
| ③ | •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
| ④ |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
| ⑤ |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 '는'은 비문임을 나타냄.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흙일 → [홍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굽다 ㉠ 「1」 손톱이나 뽀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 굽다 ㉠ 「1」 손톱이나 뽀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 ㉡ | 김-뱀 [김 : 뱀] ㉡ …… | 김-뱀 [김 : 뱀/김 : 뱀] ㉡ …… |
| ㉢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내음 ㉢ '냄새'의 방언(경상). 내음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작 표현에 쓰인다. |
| ㉣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 ㉤ | (표제어 없음) | 스마트-폰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볼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뎀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나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A] 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건넌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신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던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㉞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장강: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반첩여: 한나라 성제의 후궁.

*황릉묘: 순임금의 두 왕비인 이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2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 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24.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㉞: ‘유 한림’이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25.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는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는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제시된 바와 조용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④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①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②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③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④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⑤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⑥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⑦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⑧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8. ㉠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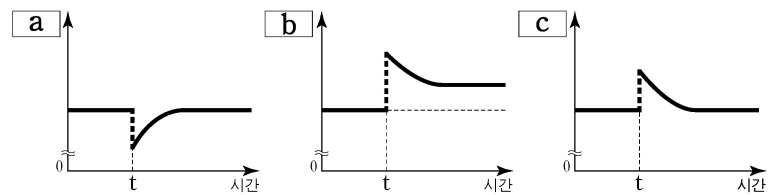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떨어져 ② ㉡: 드러낼
- ③ ㉢: 불러온다 ④ ㉣: 되돌아오면서
- ⑤ ㉤: 꺾히는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호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뒤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슬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흔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호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호야 시름겨워 호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호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요양: 청나라의 십양.
- *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십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 박제상: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 참승홀: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 성려: 임금의 염려.
- * 검불: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어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 [A]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 * 간죽하수문주인: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 두실 와옥: 몹시 작고 누추한 집.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학자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꺾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 ②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 ③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 ④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소스 부호화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39. 밑글을 바탕으로,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 ②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의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다.
- ③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 ④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최대가 된다.
- 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각각 3/4, 1/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와 같다.

40. 밑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②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 ③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한다.
- ④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 ⑤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 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 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42.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① ㉠: 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친구를 전송(錢送)할 계획이다.
- ② ㉡: 대중의 기호(嗜好)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한다.
- ③ ㉢: 나는 가난하지만 귀족이나 부호(富豪)가 부럽지 않다.
- ④ ㉣: 한번 금이 간 인간관계를 복원(復原)하기는 어렵다.
- ⑤ ㉤: 이 작품은 그 화가의 오랜 노력의 결정(結晶)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옳으니 하며 짜그락 거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쭉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명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툭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 해, 도깨비 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 더라고 귀뻘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피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

었다.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게 쉰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뜸—뜸—뜸부기 짹 찾는 소리로 개구리 논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메저지고 개펄에 성에 영기듯 허영게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땀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떡탕곳 개펄께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불이려 혼자 사당(祠堂)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떼뻬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벽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피 밑 떡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게서 뭇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탕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 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렇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헐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뉘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남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받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굵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붕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겨.”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 무등 타기와 숨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 툇던: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툇으로 훑던.
- * 콩노긔: 콩의 꽃.
- * 자마구: 곡식의 꽃가루.
- * 된내기: 된서리.
- * 감못하기도: 보이던 것이 전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기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였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땀’을 해 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